

광주시, 턱없이 부족한 수소차 충전 인프라 구축 속도

수소융합에너지 실증센터 구축...충전소 전주기 제품 필드 환경 실증 착수 2030년까지 충전소 50곳 목표...서구 등 일부 자치구 비협조 넘어야 할 산

전국 최초로 '수소차 선도시'를 선언한 광주 시가 수소융합에너지 실증센터 구축, 수소충전 기술 고도화, 수소충전소 확충 등 수소차 충전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다만 수소차 충전소 설치 허가권을 가진 서구 등 일부 자치구에서 충전소 설치를 꺼리는 등 비협조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걸림돌이다.

2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진곡산단에 구축한 국내 최초 수소 융합 에너지 실증센터를 거점으로 고장 예측, 충전 대기 시간 문제 해결 등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이런 달부터는 국내 개발품인 수소추출기, 수전해기, 차량충전, 분산발전 설비가 설치돼 시운전을 시작한다. 또 수소충전소 전주기 제품 필드환경 실

증에 착수하고, 하반기에는 차량안전 평가시스템을 도입해 충전 프로토콜 등 차량 안전기준 개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이와 함께 지난해 '수소충전소 고장예지(예측) 및 안전관리 상용화 기술개발'과 '수소전기차 다차종 동시 충전을 위한 광역수소충전소 핵심기술 개발' 공모에 선정돼 수소충전 기술 고도화·효율화 및 부품 국산화 등 미래 신산업 발굴에도 나서고 있다.

특히 첨단 3지구 내에 구축 예정인 '수소전기차 다차종 동시 충전을 위한 광역수소충전소'에 적용되는 고속충전 시스템은 세계 최초 개발 품목으로 수소산업 전반에 파급효과를 줄 것이라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시는 또 현재 운행중인 수소차량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소차 충전소 확충에도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광주에 올해 운행되는 수소차는 1000여대에 이르지만, 광주지역 수소차 충전소는 진곡, 동곡, 입암, 벽진 등 4곳뿐이다. 충전소 위치도 대부분 외곽지역이어서 접근성도 떨어진다.

시는 현재 월출, 장등동 등에 추가 충전소를 짓고 있지만, 이마저도 장등동 충전소는 버스전용 충전소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매년 3~4곳씩 충전소를 추가로 늘려 오는 2030년까지 주요 지역에 수소충전소 50개를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충전소 설치 허가권을 가진 자치구들은 주민민원 등을 의식해 정부 공모사업으로 확보한 충전소 설치 계획마저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

실제 수소차 충전소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민간사업자는 최근 광주 서구에 충전소 설치허가를

두 차례나 요청했지만, 모두 거절 당했다. 사업자들은 조만간 정부에 사업권을 반납하고, 타 지역에 설치할 예정이다.

민간사업자들은 "정부 공모사업을 통해 광주 서구와 북구에 각각 1곳씩의 수소차 충전소 설치 지원금을 확보했다"며 "수소차 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해 전국 자치단체들의 경쟁이 치열한데도, 유독 광주만 충전소 설치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는 듯 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는 국내 최초 수소융합에너지 실증센터를 기반으로 충전소 핵심부품 국산화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광역수소충전소 구축 등 수소산업 생태계 혁신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수소차 운전자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자치구와 함께 충전소 확충에도 적극 나서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3~7일 청년·청소년 특별주간 이용섭 시장 현장 목소리 청취

이용섭 광주시장이 3~7일을 청년·청소년 특별주간으로 정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 소상공인, 문화예술에 이은 코로나19 극복 3번째 특별주간이다.

이 시장은 3일 조선이공대와 청년13(일+삼)통장 약정식에 참석한다. 조선이공대는 '광주형 일자리' 대표 사업장인 광주글로벌모터스에 전국 최대 인원을 합격시킨 특성화 대학이다. 이어 4일에는 청소년 직업체력 특화시설 '청소년 숲 디자인센터', 6일에는 청소년수련원과 위기청소년 지원시설 사업 현장 방문한다. 마지막으로 7일에는 청년 일자리·창업 지원 현장인 동명동 아이플렉스(I-PLEX)와 시민회관을 찾는다.

이 시장은 "코로나19로 얼어붙은 경제 속에 창업 기회는 물론 학습 공간, 아르바이트 자리마저 줄어들어 젊은이들은 삶의 근간이 흔들리는 위기에 직면했다"며 "청년 삶의 현장을 더 면밀히 들여다보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 농어촌 빈집 1500개 마을공동시설 등 활용 추진

전남도는 도내 1500여동의 빈집을 정비하면서 마을 공동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동시에 추진한다.

2일 전남도에 따르면 그동안 빈집은 매년 예산 형편에 따라 철거 위주로 추진해 왔다.

지난해 20억원을 들여 1400여 동을 정비하는 등 그동안 245억원을 투입해 3만8000여동을 정비했다. 올해는 1천500여동을 정비 또는 활용할 계획이다.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농어촌 읍면지역을 기준으로 집계한다. 시·군·구·읍·면 지역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전국 5만6000여동이 있고, 이 가운데 전남에 1만4000여동이 있다. 매년 2000여동씩 늘어나 모두 정비하는데 한계가 있다. 통계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빈집은 전국적으로 151만7815동이 있고, 전남에는 12만1767동이 있다.

이런 가운데 빈집 철거사업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불가피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지만, 전남도는 가급적 마을 특성을 살리고 활용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철거 부지에는 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등을 갖추고, 나무 등을 심어 마을 공동시설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마을별 실태 조사를 통해 활용 대안을 제시하도록 해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또 도시재생사업,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농어촌 마을 경관 개선사업 등을 통해 확보한 활용 가능한 빈집의 정보를 귀향, 귀촌을 바라는 도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정영수 전남도 건축개발과장은 "앞으로, 건축, 토지관리, 도시개발 등으로 분산된 업무 간 협업을 통해 빈집이 활용이 되지 않도록 정비하고 마을을 살리는 지원시설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이용섭 시장,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총장 면담
이용섭 광주시장이 지난 30일 오후 시청 접견실에서 크리스토퍼 하이더 주한 유럽상공회의소 총장과 만나 환담을 나누고 있다.

광주 자치경찰조례안 의회 통과... 10일 자치경찰위 출범

시의회 추천위원 모집 결격사유 없는 1위 배제하고 4위 선정 뒷말 무성

오는 7일 시행되는 광주시 자치경찰제의 법적 근거를 담은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했다.

광주시의회는 지난 30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광주시 자치경찰 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자치경찰 사무의 범위,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생활안전·교통·경비 등 자치경찰 사무는 광주시장이 광주경찰청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했다.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직원(파견 경찰관)에게는 광주시 관련 조례에 근거해 후생·복지 지원을 하도록 했다.

시장은 자치경찰위원회 임명과 함께 위원 중 1명을 위원장으로 임명한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재직 의원 2인 이상 찬성으로 위원회에 의안을 발의할 수 있고, 위원장은 발의된 의안을 회의에 상정해야 한다.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단독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고 자치경찰위

원회는 경찰청 등과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는 자치경찰 사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예산안 심의·의결 전에 경찰청장에게 통보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시는 7명으로 구성된 자치경찰위원 선임 절차를 마치고, 오는 10일 자치경찰위원회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다만 시의회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위원 2명을 추천하면서, 결격 사유도 없는 1위를 배제하고 4위를 위원으로 선정한 것을 두고는 여전히 뒷말이 무성하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광주시 상수도본부 조직개편 권역별 수도 사업소 신설

광주시는 "최근 상수도 사업부 조직개편안을 마련해 관련 조례, 규칙을 입법예고 했다"고 2일 밝혔다.

개편안은 권역별 수도 사업소, 물 운용 총괄과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편안이 확정되면 본부 조직은 기존 2부, 5과, 9사업소에서 2부, 6과, 5사업소로 조정된다.

광주시는 시설관리소와 5개 자치구별 지역 사업소를 통합해 2개(동·북, 서·남·광산)의 권역별 수도사업소로 확대 재편한다. 현재 소규모 지역사업소 체제로는 662km에 달하는 노후관과 4만여개 계수밸브 등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개편안은 오는 6월 열리는 시의회 정례회에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광주시·인공지능융합사업단 AI 창업경진대회 참가자 모집

광주시와 인공지능융합사업단은 "오는 28일까지 인공지능 창업 경진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심사는 예선 서류심사에서 30개팀을, 본선 발표심사와 결선 발표심사를 통해 최종 10개팀을 선정한다.

선정팀에는 창업을 위한 AI 시제품 서비스 제작 지원비를 25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인공지능융합사업단이 추진 중인 AI제품·서비스 품질 확보, 규제해소 컨설팅, 마케팅 지원 프로그램에 이용시 우대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이제는 내일에 투자합니다!

불안한 금융상품
안전성없는 주식투자

내일을 위한 보험! 안정적인 고수익 투자!
투자만으로 수목장 자연장지를 선분양

은행이자

갈수록 떨어지는 금리
이제는 마이너스 금리시대

1억 투자시
평균 31~51만원

부동산 투자

수요와 공급의 역전
텅텅 비어버린 부동산들

1억투자시
평균 30~50만원
(임대되었을시)

친환경장묘문화(주)투자

안전성 보장
실제 운영하는 수목장의
장원장지를 분양도 받고
수익까지 창출하는
미래형 재테크

친환경장묘문화(주) ☎ 062) 412-2800